

# 다니엘서 - 제42번

## 연결 고리

Jeff Pippenger

2024-01-06

세레 요한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예언자였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였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는 율법과 선지자가 기독교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작은 빛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빛이 뒤따를 것이었다. 요한의 마음은 성령으로 밝힘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으나,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흘러나온 그 빛만큼 타락한 인류 위에 지금까지 그렇게 분명히 비추었거나 앞으로도 비추게 될 다른 빛은 결코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그늘진 제사들 속에 예표되어 왔으나 겨우 어렴풋이 이해되었을 뿐이었다. 요한조차도 구주를 통해 주어질 장차의 불멸의 생명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시대의 소망, 220.

예수는 또한 연결고리인 선지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앞서 여셨다. 그분은 두 세계를 이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인간에게 가져오시고, 그의 공로로 인간을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결과 거룩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고 더디지만, 앞으로 위로 나아가며 따라가는 일은 고된 일이다. 그러나 신성한 삶에서 전진하는 매 걸음마다 새 활력과 신적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마련을 해 두셨다. 이것이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원하고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과 경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누를 끼치게 된다.” 증언 3권, 193쪽.

세레 요한의 예언적 사역에는 지상의 경륜을 하늘 성소와 연결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레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29.

그러나 요한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의 전환을 밝혀내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 전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옹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한 자니라.” 요한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개혁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택정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 사이를 잇는 가교였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결과, 주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한은 작은 빛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빛이 뒤따를 것이었다. 그의 사명은 백성들이

그들의 전통에 두고 있는 확신을 흔들고,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며, 회개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영감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어 그 선지자를 밝히 비추셨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쌓여 온 미신과 어둠을 정직한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셨다.

"예수를 따라 그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의 신성한 가르침을 들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위로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더 분명한 빛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통해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는 그 빛 외에는,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의 지성 위에 비쳐 온, 또는 앞으로 비치게 될 다른 어떤 빛도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림자 같은 제사들을 통해 희미하게 이해될 뿐이었다. 요한조차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그가 신민으로 거룩한 자들을 두는 현세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73년 4월 8일.

사도 바울은 또한 문자에서 영으로의 전환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혀내는 연결 고리 역할의 선지자였다. 그는 문자적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언의 예루살렘이 아니며, 그것이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전환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상응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한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갈라디아서 4:25, 26.

우리가 살펴보아 온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실제의 이교 로마가 영적 교황 로마가 538년까지 권좌에 오르는 것을 억제하던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 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죄의 사람"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다니엘이 지목한 그 "왕"과 동일하다고 밝힌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나오는 "북방 왕"이 교황권이라는 증거는, 1989년의 "지식의 증가" 때부터 Future for America가 사용해 온 진리의 틀을 확립하는 열쇠가 되었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이방 로마가 제거될 때까지 교황권의 부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그로써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방 로마임을 밝혔다. 그 진리는 1798년에 지식의 증가를 가져온 진리의 틀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윌리엄 밀러의 역사에서 그 메시지는 빌라델비아 운동에서 라오디게아 운동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려던 때에 선포되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역사에서는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빌라델비아 운동으로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제시하여 문자적 이교 로마에서 영적 교황 로마로의 전환을 밝혀 준 그 진리는 밀러의 예언적 이해의 틀이 되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은 모두 문자적에서 영적으로 전환을 설명하도록 세워졌다. 윌리엄 밀러는 세례 요한으로 예표되었으며, 그의 사역에서 그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관계와 전환, 곧 요한이 그것을 식별하도록 세워졌던 그 전환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다니엘서에는 "the daily"에 대한 언급이 다섯 차례 나오며, 그것들은 항상 교황권의 표상을 앞선다. 우리가 살피는 예언적 전환의 맥락에서, 그 다섯 언급 모두에는 문자적

로마에서 영적 로마로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다니엘서의 "the daily"는 하박국의 두 표에 제시된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수호되어야 했던 기초적 진리이며, 결국에는 거짓되고 위조된 보석과 동전들로 덮여 가려지게 될 진리이기도 하다.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 제시된 모든 진리가 엘렌 화잇의 저술 속에서 영감에 의한 직접적인 승인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기초적 진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the daily"를 포함하여) 거절하는 것은 동시에 예언의 영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은 'the daily'를 이교 및/또는 이교 로마의 상징으로 이해했다. 그들의 이해에는 다니엘서의 해당 구절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본래 속하지 않으며,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인간의 지혜로) 덧붙인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구자들의 이해에는 또한 'the daily'가 항상 교황권의 두 상징 가운데 하나와 연관되어 제시되었고, 이교('the daily')가 언제나 그 교황권의 상징에 앞선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예언적 역사 속에 등장한 순서대로 항상 식별되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교가 교황권에 앞선다는 역사적 순서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요한계시록이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황폐케 하는 권세를 도입할 때에도 그 순서는 항상 유지된다.

바울의 가르침, 곧 예언의 문자적 내용이 십자가의 시기에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가르침이 없다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과 관련하여 난제가 생긴다. 다니엘서에서 "the daily"와 연결된 교황권의 두 상징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과 "황폐하게 하는 범법"이다. 그 두 상징은 짐승의 표(가증한 것)와 짐승의 우상(범법)을 나타낸다.

교황권이 이단으로 여기는 자들을 살해할 수 있게 하는 죄악은, 그 관계를 교회가 통제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교황권 짐승의 형상인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황폐하게 하는 죄악'으로 나타낸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교황권의 모든 우상 숭배는 그들의 우상 안식일로 대표되는데, 요한은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부르고 다니엘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부른다.

그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까지 커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는 군대의 주관자에게까지 스스로를 높였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었으며 그의 성소가 헐렸다. 범죄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제사에 대항하도록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행하여 형통하였다. 다니엘서 8:9-12.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열한째 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인 권세가 그의 탄생 때 그를 죽이려 시도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한 이교 로마였다고 말한다. 그 구절은 "그로 말미암아"(이교 로마) "the daily was taken away"라고 말한다. "taken away"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rum"이며, "들어 올려 높다"를 뜻한다. 이교 로마는 이교 종교를 들어 올려 높일 것이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이교" 로마라고 불리는 이유다.

다음 절은 교황 로마가 "the daily"(이교)를 대적하거나 제압할 "host"(군사력)를 부여받았음을 밝힌다.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인데, 교황권은(자체 군대를 가진 적은 없었지만) 권력으로의 부상과 부과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그 힘은 이교 로마에서 왔다. 교황권이 동원한 그 군사력은 "범법"을 통해 주어졌는데, 538년에 교황권을 권좌에 올려놓은 왕들의 군대를 교황권이 지배할 수 있게 했던 그 "범법"은 바로 정교 결합이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교 로마가 다루어지며,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를 거슬러 일어서고 이교의 종교를 높일 것임을 학생에게 알려 준다.

다음 절은 정교 결합의 범위를 묘사하는데, 그 결합으로 인해 교황권이 이교 로마가 자신에 대해 행사하던 제약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그 두 구절에 대한 이러한 적용을 뒷받침한다. '상번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권세인 이교 로마를 의미하거나, 이교 로마가 높였던 이교의 종교를 의미한다. '상번제'라는 상징 다음에는 교황권이 이어지는데, 정교 결합의 범위를 지목함으로써 교황권이 그 더러운 일을 수행할 군대를 갖게 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다니엘이 '상번제'를 세 번째로 사용하는 대목에서는, 재림교회의 중심 기둥이 되는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제시된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멸망하게 하는 범위에 관한 그 이상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힘을 당하게 되리이까 하더라.  
다니엘 8:13

이 구절에서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묻고 있으며, 따라서 한 시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나타내는 답을 요구한다. 질문은 그 환상이 어느 날짜에 성취될 것이냐가 아니라, 그 환상의 기간이 얼마냐는 것이다. 이 구절은 "언제?"가 아니라 "얼마 동안?"을 묻는다. 그 환상은 "the daily"로 표현된 이교의 황폐케 하는 권세와, 교황권이 땅의 왕들과 간음함으로써 저지르는 범위로 표현된 교황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교와 그 뒤를 잇는 교황주의라는 그 두 황폐케 하는 권세는 "일곱 때"의 기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을 것이었다.

바빌론 시대에 시작되어 서기 70년 이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까지 이어진 문자적 성소의 짓밟힘은, 그 전 기간 내내 이교 권세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문자적 성소와 문자적 무리(하나님의 백성)를 짓밟은 것은 여러 이교 세력이었다. 그러나 영적 예루살렘과 영적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은 영적 로마였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2, 3.

세레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경륜이 전환됨을 가리켜 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 바울은 문자적 이스라엘(그 군대)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경륜이 전환됨을 가리켜 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 마흔두 달 동안 짓밟힌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기간—'사십이 개월'과 '천이백육십 일'—은 동일한 것으로,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를 나타낸다. 교황권의 1260년간의 지배는 서기 538년에 시작되어, 따라서 1798년에 종료되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들어와 교황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는 유배지에서 죽었다. 곧이어 새 교황이 선출되었지만, 교황 제도는 그 이전에 가졌던 권세를 다시 행사하지 못했다. The Great Controversy, 266.

바울은 십자가의 역사에서 전환이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영적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시가 되었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경 예언의 예루살렘이 아니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상응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한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갈라디아서 4:25, 26.

이 진리는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경 예언의 상징으로 문자적 예루살렘을 적용하는 거짓된 해석은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 예수회가 만들어낸 기만의 일부이다. 그 거짓 가르침은 배도한 개신교 내에서 현대 유대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예언의 상징으로 잘못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문자적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니게 되었다.

예루살렘 도성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임해 있다. 죄책의 어두운 얼룩이 그 위에 드리워져 있으며, 하늘의 정결케 하는 불로 깨끗해지기 전에는 다시는 거룩한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모든 죄의 얼룩에서 정결하게 되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의 발이 그 위에 설 때, 그것은 둘로 갈라져 하나님의 성을 위해 준비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1년 7월 30일.

문자적 예루살렘과 영적 예루살렘의 구별이 갖는 관련성은 우리가 세상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the daily'를 네 번째로 언급하는 곳은 11장이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요새 같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11:31.

이 절은 538년에 교황권을 지상의 왕좌에 올려놓는 데 이교도 로마가 한 일을 밝히고 있다. "팔"은 496년에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로부터 시작해 교황권을 위해 일어난 이교도 로마의 군사력을 가리킨다. 클로비스 이후에도 여러 유럽의 왕들이 교황권의 옹립을 위해 힘썼지만, 그 절은 그들이 두로의 음녀와의 정교 동맹으로 범죄를 저지른 뒤 유럽의 왕들("팔")이 교황권을 위해 행한 네 가지 일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교황권 편에 섰을 때, 그들은 도시 로마를 "더럽히거나" 파괴했는데, 로마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양쪽 모두의 힘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그 구절이 말하는 "오염"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듭 이루어졌는데, 로마가 끊임없는 군사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유럽의 왕들(곧 "팔")은 또한 "the daily"를 "제거할" 것이다. 이 절에서 "제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8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rum"이 아니다. 이 절에서 "제거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sur"이며, 제거한다는 뜻이다. 유럽의 왕들의 "팔"은 508년에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이교도의 저항을 제거했다. 그리고 538년에 그 "팔"은 교황권을 지상의 왕좌에 올려앉혔다. 그리고 바로 그해 오를레앙 회의에서 교황권은 일요일 법을 시행했다.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삼는 것을 화이트 자매는 "우상"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증함"이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는 곧 우상숭배다. 서기 538년에 이교 로마의 군대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은 날인 우상화된 안식일을 높여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릇되게 오용하여 그 모든 힘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의 분별력을 가리는 다른 영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이 전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제정임을 보지 못한다." 선택된 기별, 제3권, 423.

예언과 역사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31절에 대한 적용을 뒷받침한다. 우리가 예언이 이 적용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때, 지금은 그것들을 논의에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같은 사실들을 다루는 다른 예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the daily"를 사용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경우는 12장에 나온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다니엘 12:11, 12.

예언과 역사는 서기 508년에, 다니엘서 7장이 밝힌 대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 가운데 마지막인 고트족이 뿌리째 뽑혔을 때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저항이 사실상 끝났다고 뒷받침한다.

내가 그 뿔들을 생각하는 중에, 보라,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그 앞에서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뿔이 뿌리째 뽑혔다. 또 보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다니엘 7:8.

제거되는 세 뿔은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 가운데 셋째가 508년에 로마 시에서 축출되었을 때, 교황 권세의 부상에 대한 저항이 제거되었다. 11절에서 언급된 세움은 508년에서 538년 사이의 30년을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30년을 지칭한다.

"taken away"로 번역된 단어는 "sur"이기도 하며, 이는 제거하라는 의미이고, 508년에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저항이 제거되었다(taken away). 그 날짜로부터 1,290년은 1798년, 곧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에 이르게 한다. 1,335일은 첫 번째 실망과 1843년의 맨 끝에서 시작되는 지체의 때에 이르게 한다. 그 구절은 1843년에 "cometh" 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한다. "cometh"이라는 단어는 당대를 의미한다. 1844년의 첫날은 첫 번째 실망을 표시하지만, 1843년의 마지막 날은 1844년의 첫 순간에 닿는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다음 해의 첫날과 맞닿아 있다. 그 날짜와 관련된 복은 역사와 예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음 글에서 'the daily'가 근본적 진리로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것들을 본 눈은 복이 있다.

"그 기별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큰 사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한 기별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큰 외침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437.